

## ▶공지사항 ◀

- 불타 예술제 안내  
5월 3일 불타 예술제 2차 리허설  
5월 16일 불타 예술제 - 오후 7시 00분 관음전
- 봉축법요식  
5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관음전
- 5월 24일(일) 회주스님 법회.
- 5월 31일(일) 야외법회 장소: Bunker Hill park  
주소: W Harts Rd, Niles, IL 60714
- ※ 초과일 연등 \$100, 영가등, 사업등(형편껏).
- ※ 화환: 대웅전 상중하단(2개씩), 무설전 입구(2개),  
보원관음전 입구(4개),  
꽃바구니: 무설전(상중단 2개씩 4개), 극락전 2개,  
어린이방 2개, 사경 기도방 2개

## ▶기 도 동 참(4월 25일 - 5월 2일)◀

- 법등: 현성스님 음주희 김미경 김승한 최종호 신환수  
김영률 안미영
- 인등만등:
- 연등: 김택영 홍주연 고순동 나요미 조재이 조여규
- 백등: 김승한 김성례 김택영 조재이 최문자
- 대중공양: 진여성
- 기도 보시 : 조창연

## ▶법회 및 기도 안내◀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저녁 8:00-9:30  
매주 일요일 오전 10:00-10:50, 오후 2:00-3:00
- 영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 불교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2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참선수행: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 도감: 인성스님

##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5월 3일 제 38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 부처님 말씀

사람이 본래 악하지는 않지만

근기와 성품이 서로 같은 점이 있어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어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어울린다.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각기 서로 어울리는 것과 같다.  
중생도 근기와 행하는 법에 따라 서로 각각 어울리게 된다.

나쁜 벗이나 어리석은 이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지 말고  
착한 벗이나 지혜로운 이와  
항상 더불어 사귀어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한 사람과 가까이 친하게 되면  
뒷날에 반드시 악행에 물들어  
좋지 않은 이름이 세상에 퍼지리라.

##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Sanskrit)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 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정신적 혼돈, 그리고 갈등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